일본의 관광 현황 보고서

21502829 영어영문학과 김찬형

일본을 한번 갔다 온 나는 주제가 흥미로워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일본의 전체적인 것을 조사하여 관광 현황을 알고 싶었지만 그렇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여서 같은 조원들과 도시를 선정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금은 일본 전체적인 관광 현황을 조사하였다. 외국 관광객이 제일 많았던 시기는 2018 ~ 2019년도 였고 최고 관광객 수는 3000만명을 넘긴 수치였다.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고 부터는 관광객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국내여행객이 늘어나는 것 같았지만 코로나의 확진자수가 늘어남으로써 국내여행객마저 줄어들게 되었다.

 그 다음은 내가 조사한 도쿄에 대한 것이다. 도쿄의 유명한 관광지를 살펴보자면 우선 센소지 절이다. 센소지 절은 도쿄내에서 가장 오래된 절로 유명하며 사계절내내 다른 분위기와 계절마다 다른 이벤트를 하며 사계절의 느낌이 다 다르다고 한다. 절까지 뻗어있는 도로에는 90여개의 상점이나 음식점들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 두번째로는 도쿄의 랜드마크이자 가장 유명한 도쿄타워이다. 1985년 완공 되었으며 333m의 높이를 자랑한다. 전망대는 150m에 위치하고 있으며 600여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고 한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멀리 있는 후지산도 보인다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도쿄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도쿄 디즈니랜드이다. 도쿄 디즈니랜드 역시 1985년에 개장했으며 총 7개의 테마랜드로 구성되어있다. 테마랜드마다 각각의 테마로 구성된 매점, 음식점, 놀이기구들이 있다. 디즈니랜드 안에 리조트와 호텔도 들어와 있어 숙박을 하며 바로 놀이공원으로 향할수 있다.

 코로나 전의 도쿄엔 ( 2018년 ) 해외 관광객은 1429만명이 일본인 국내 여행객은 5억명이 넘게 다녀갔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일본이 공항을 막으면서 관광객의 수는 급감하였다. 국내 여행객이 늘어나는거 싶었지만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서 국내 여행객도 줄어들게 되었다. 그 후 코로나로 인해 도쿄에 살던 사람들도 일자리 문제나 거주비의 부담감으로 도쿄를 떠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 현재는 일본에서 다시 공항의 문을 개방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며 위드코로나 시대가 다가오자 다시 관광객을 맞이 할 준비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21945460- 응웬 응옥 마이- 경영학과

1: 일본의 고도로서 세련된 문화와 미식 ,예쁜 시골 풍경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물이 가득한 교토다.교토시에는 매년 일본 전통문화 타방을 위해 이곳을 찾는 내국인과 외국인 방문객이 수백만 명씩 몰리다.

2: 교토 관광지

-교토부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사찰의 수가 2000개가 넘고 일본 국보의 약 20%, 중요 문화재의 약 14%가 교토 시내에 있다.

-교토 일대의 유적들 중 총 17곳이’ 고대 교토의 역사 기념물’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3:관광객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5,352만명으로 4년 만에 증가를 기록하였고, 관광소비액은 1조 2,367억엔으로 4년 연속 1조엔을 넘었다

- 전체 관광객 중 외국인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한 886만명으로 전체의 16.6%를 차지하였습니다.

​- 한편, 같은 날 관광통계를 발표한 교토부는 2019년 관광객수가 8,791만명(전년 대비 3.45% 증가)이고 교토시를 일본 최대의 관광도시 교토시가 발표한 관광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교토시를 방문한제외한 지역은 3,439만명(同 6.5% 증가)에 달해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4: 교토는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도시로 알려진 여행지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한 해 5천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오버 투어리즘’을 걱정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나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하며 큰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교토의 유명 관광지 아라시야마 협의회는 “텅 비었어요” 마케팅을 펼치며 교토의 어려운 상황을 알렸다. 교토 시내 호텔의 공실이 1000개 실이 넘었으며 1박에 약 2500원짜리 방이 등장하기도 했다. 70년 넘게 운영 중인 교토의 한 전통 숙박업소 대표는 “올해도 지금까지 매상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10% 이하 밖에 안 돼요”라고 전하며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교토가 재정 위기를 맞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하철이다. 교토의 지하철은 1997년 개통돼 시가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거품 경제기에 비싸게 지었지만 이용객 수가 현저히 적어 적자를 보고 있다. 교토시는 건설 당시 하루 승객 18만 명을 예상했는데요. 현재까지 18만 명에 이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6: 일부 관광지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고, 도시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도록 유도하고자 2019년 9월부터 “교토 관광 Navi”를 개설, 운영 하였다.

-교토 관광 Navi는 관광지의 혼잡도를 나타내어 관광객의 방문 시기 장소 시간의 분산을 꾀하다

-또한 밀집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교토 자전거 관광＂을 적극 지원하다.

22290554 사노 미즈호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제　고향　홋카이도를　소개하고　싶어던　거와　제가　일본에서는　관광학부라서　선택했습니다．

제가 소개할 내용은 홋카이도 정보, 홋카이도 관광지, 홋카이도 코로나 전후, 국내 여행 정보입니다.

먼저 홋카이도의 관광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홋카이도의 관광 정보입니다. 먼저 일본 전체의 방일 의국인의 수는 3163만명입니다.　그중에 훗카이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9.8%로 한 300만명정도입니다.　이들이 방문하는 목적으로는 훗카이도의 세계자연유산인 시레토코나 혹은 하코다테를 중심으로 있는 훗카이도 및 북도호쿠 지역의 조몬 유적를 구경하기 위해서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 점점 훗카이도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수는 증가하고있습니다.

　이제는 훗카이도의 관광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삿포로 화이트 일루미네이션입니다.　이 축제는 삿포로에 많이 내리는 눈을 주제로 한 축제이며 삿포로 생각하면 눈을 떠올리게 만든 대표적인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은 후라노 라벤더 밭입니다.　이 라벤더 밭은 7월에 가장 성수기로 훗카이도의 관광 명소중에서도 가장 인가 많은 장소입니다.　후라노 라벤더 밭은 7개의 밭이 있고 일본 최대의 라벤더 밭입니다.　이곳에는 연간 약 100만명은 방문객이 방문합니다.

　세번째는 노보리베츠 온천입니다．　노보리베츠의 온천의 시초는 1857년이며 총 9종류의 온천이 있으면 숙박뿐만 아니라 당일치기로 온천욕을 즐기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이 노보리베츠 온천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자주찾는 관광지로 연간 400만명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마지막으로 니세코입니다．니세코는 일본 훗카이도의 겨울 관광장소이며 특히 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있는 장소입니다.　그 이유는 니세코에서는 내리는 눈은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전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니세코에서 내리는 눈을 보기 위해 방문합니다.

그 다음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차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 하기 전까지는 홋카이도는 국내 인기 관광지 1위, 그리고 지역 브렌드 1위였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여행할 때 일본인 관광객은 음식을 중심으로 여행 하는데, 외국인 관광객은 자연에서 하는 액티비티를 중심으로 여행합니다. 그리고 홋카이도는 주로 대만인, 중국인, 한국인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코로나 전에 홋카이도 여행 할 때 시골이기 때문에 교통 기관이 적은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로나　후에의　대책를　소개하겠습니다．먼저　해외　여행　제한중은　자연，문화체험　액티비티를　제안하는 거．　그리고，서비스의　ＩＴ화　비접촉화를　추장하는 거．　그리고　해외　여행　재개　할 때는　유럽，　미국，호주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그리고，다양한　언어로　대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거．　그리고　워크케이션의　제안입니다．이거는　ｉｃｔ를　써서　지방　등　평상시의　직장과는　다른　장소에서　일하면서도　지역의　매력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　전후의　차이입니다．